



배우 지현우(왼쪽부터), 엄태웅, 김아중, 박효주, 전효성, 이문식, 이승준, 박해준이 SBS드라마스페셜 '원티드'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리얼리티 스타릴러...장르물 끝판왕 될까

SBS '원티드' 김아중·엄태웅 등 출연

국내 최고의 여배우의 아들이 유괴되고 범인은 자신의 요구에 따라 생방송 리얼리티쇼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SBS TV 새 수목 드라마 '원티드'는 아들을 찾고자 하는 여배우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여려는 PD, 재장난을 해결하려는 방송사 사장이자 아이의 아버지, 특종을 찾는 기자가 얽히고설켜는 이야기다. 제목 '원티드'는 극중 리얼리티쇼의 제목이기도 하다.

드라마는 자극적인 소재를 쫓는 미디어의 본성을 꼬집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게 한다.

아들을 잃어버린 여배우 정혜인 역은 배우 김아중이 맡았다. 정혜인은 UCN 방송국 사장 송정호(박해준 분)와 '소원도 부부' 더 이상의 거짓 삶이 싫어 은퇴를 깜짝 선언하지만, 그날 아들이 유괴되면서 아들을 찾기 위해 강제로 리얼리티쇼에 출연하게 된다.

김아중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에서 진행된 '원티드' 제작발표회에서 "미디어 종사자로서 미디어에 대해 자성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작가의 편지에 마음이 움직였다는 그는 "모성애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이렇게 주변 인물들이 입체적으로 그려진 대본은 보기 드문 것 같다"며 "절절한 모성애도 있지만 여러 인물과 소통하고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연기하고 있다"고 털어놴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범인이 10회쯤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작품이 단순한 '범인찾기'가 되기보다는 범인이 무엇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극중의 시청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드라마가 전하는 메시지에 더 관심이 모아졌으면 합니다."

앞서 '싸인' '편지' 등을 통해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를 보여줬던 김아중은 "명이 많이 들었다. 액션영화에 나오는 멋진 액션은 아니

고 처절한 현실 액션을 하고 있다"며 "감독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명을 보여드렸는데 별 반응이 없으셨다"고 울상을 지어 보았다.

'원티드'는 캐스팅 작업이 늦어지면서 급박하게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

김아중은 "우리에게 3주만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시간 때문에 건성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세 사람만 미쳐있으면 작품이 잘 된다고들 해요. 저도 이 작품에 미쳐있고 감독님, 지현우씨도 미쳐있어요. 특히 지현우씨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배우인 줄 몰랐어요. (웃음)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으니 예쁘게 봐주세요."

혜인의 아들을 찾는 강남경찰서 강력1팀 차승인 경위를 맡은 지현우는 "단순히 범인을 찾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엄태웅은 혜인의 첫사랑으로 흥행 PD인 신동욱 역을 맡았다. 엄태웅은 "처음에는 말이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대본을 읽을수록 그럴 수 있겠다. 심다"며 "'장르물의 여왕' 김아중을 믿고 가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문식이 미디어의 선한 영향력을 믿는 드라마감독이자 '원티드'의 책임프로듀서 최준구를, 박효주가 유능한 방송작가 연우신을 맡았다.

'태양의 후예'로 얼굴을 널리 알린 이승준은 출세욕에 눈이 먼 연예 기자 장진웅으로 출연한다. 걸그룹 시크릿의 전효성이 해커 출신 조연출 박보연을 연기한다.

박영수 SBS 책임프로듀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현실적인 스타릴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박 책임프로듀서는 "초자연적 현상 없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공포스러운 현실을 나타내는 리얼리티 스타릴러이자 범인을 찾는 추적 스타릴러"라고 기대했다. 22일 첫 방송. /연합뉴스

올 여름 접수하러 씨스타가 떴다

1년만에 미니앨범 '몰아에' 발표 '아이 라이크 댓' 차트정상 차지

"항상 여름에 발표하던 노래와 차별화를 두려고 했어요. 섹시한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가창력을 유지하려 노력했죠."(보라)

'서머 쿨' 씨스타(효린, 보라, 소유, 다슴)가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1년 만에 컴백했다.

멤버 보라는 21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네 번째 미니앨범 '몰아에'(沒我愛) 발표 기념 쇼케이스에서 "'터치 마이 바디'(Touch My Body)는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듣기 좋은 곡이라면, '아이 라이크 댓'(I Like That)은 여름에 그늘에서 들으면 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소개했다.

'자기 자신을 잊고 사랑에 빠진다'는 뜻의 앨범 제목처럼 새 앨범은 매혹적인 분위기가 가득하다. 특히 타이틀 곡 '아이 라이크 댓'은 경쾌하고 발랄한 기존 여름 노래와 차별화를 두면서 새로운 매력을 발산한다.

"'몰아에'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바쳐서 사랑하는다는 내용인데 신바람과 몽환적인 느낌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노래도 노래지만 퍼포먼스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소유)

소유는 기존 앨범과의 차별점에 대해 "기존 곡들엔

'블링블링' 하게 보이도록 힘을 많이 줬다면 '아이 라이크 댓'은 뭔가 내려놓은 느낌으로, 표정도 눈에 힘을 주기보다 슬픈 감성을 담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0시 공개된 '아이 라이크 댓'은 전 음원차트 정상을 석권해 '서머 쿨'의 음원 파워를 입증했다.

다슴은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 대해 "평소 군무 중심으로 구성했다면 이번엔 스토리를 강조했다"며 "비주얼 뮤직의 완성"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앨범 수록곡 가운데 '세이 아이 러브 유'(Say I Love You)는 효린의 프로듀싱 역량이 드러난 곡이다.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편곡을 바탕으로 멤버들의 개성을 한껏 살린 탄탄한 구성이 조화롭다.

효린은 "아무래도 제가 만든 곡이어서 멤버들이 녹음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줘 곡 작업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다슴은 "효린 언니가 모니터링을 부탁해서 들었는데, 예전에는 상업적이지 않은 곡을 주로 썼다면 이번에는 대중적이면서도 좋은 곡을 썼다"며 활짝 웃어 보였다.

지난 2010년 6월 데뷔한 씨스타는 여름 햇살을 담은 건강미, 내용 없는 솔직한 모습과 화려한 퍼포먼스, 시원한 여름 노래로 대중들에게 각인됐다.

특히 '소 쿨'(So Cool), 'Give it to me), '터치 마이 바디', '셰이크 잇'(Shake It) 등 여름을 겨냥한 댄스곡으로 서머 송의 강자로 군림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 PD의 자연 담은 한기 10 결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스쿨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	00 다큐멘터리 3일	00 창사 55주년 특별기획 (육중화)(재)	00 닥터 365 05 토크콘서트 화통(재)
12	00 KBS 뉴스 12	0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재)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드라마 (가화만사성)(재)	00 SBS 12 뉴스 50 닥터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보물섬) 55 감성애니 하루 (재)			20 자연의 신비, 슈퍼센스 55 TV블로그 꿈지락
2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5 우리말 겨루기(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20 텔레노스터리(재) 25 내 꿈에 라비와 친구들 스페셜 55 텔레노스터리(재)	00 세상발전 유레카 55 닥터365
3	45 세계는 지금 스페셜 55 튜닝생활제	00 자동차보행성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파이널드(재) 55 파워배틀 외치기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55 감성애니 하루(재)	25 UEFA 유로 2016 하이라이트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인생! 개발개발 30 터닝메카드 W	00 MBC 이브닝뉴스	00 꼬마해녀 동니와 해녀특공대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2016 광주 세계 웰콘텐츠페스티벌 개막식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 스페셜 55 감성애니 하루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신)	00 수목미니시리즈 (운빨로맨스)	00 드라마 스페셜 <원티드>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프로스포츠, 희망으로 가는 길)	10 해피 투게더	10 능력자들	10 자기야 백년손님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울긋불긋(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에 생활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인절미 배나나 토스트와 매시에이드)
05:30 건강엔 아침	11:20 세계테마기행 (재)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삼국지 북벌)	12:00 EBS 정오 뉴스
06:10 세계의 눈	12:10 통일의 길
07:00 지파티스(재)	12:40 역사채널
07:30 꼬마버스 타요(재)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07:45 뽀롱뽀롱 보로로	13:40 오 마이 미래 2035
08:00 똥똥똥 유치원 1~3	13:50 이말! 스페이스 정글
08:45 방귀대장 뽀롱이	14:00 코코몽2
09:00 달리와 친구들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00 모피와 친구들
09:40 달라졌어요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0:30 한국기행(재)	
15:20 꼬마 철학자 휴고	20:50 세계테마기행 <과학 남매가 간다! 말리시아 정글 탐험>
15:35 호기심나라 오키도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1:30 한국기행 <오지마을에 사랑이 산다 4부 김은 산속 용달생 집>
16:00 곰디와 친구들(재)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기적의 가위바위보 한판합시다>
16:30 방귀대장 뽀롱이(재)	22:45 다문화 고부열전
16:45 똥똥똥 유치원1~3(재)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슈퍼맨이 되고 싶은 아빠, 가나에서 온 콜린스>
17:30 꼬마버스 타요(재)	24:05 역사채널 6(재)
17:45 뽀롱뽀롱 보로로(재)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1.2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20:40 다큐오늘 <캄보디아에 우기가 오면>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3일(음 5월 19일 丙子)
子	48년생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익이 따를 수도 있는 하루다. 60년생 친화력과 자연스러움이 절실할 필요할 때이다. 72년생 요긴한 것이니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되느니라. 84년생 실제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08, 44	42년생 현재에 국한하지 말고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절실하다. 54년생 길경의 해가 서서히 솟아오르고 있다. 66년생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는 형세임을 알아야겠다. 78년생 빨리 버리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59, 33
丑	49년생 직접 접해 봐야만 알는 바가 있느니라. 61년생 갈밭의 차이로 인해서 진입하지 못하리라. 73년생 정확성만이 후일의 안전을 담보하리라. 85년생 충분히 이원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운의 숫자 : 67, 29	43년생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전혀 애매할 필요 없다. 55년생 양호하지만 마무리가 아쉽다. 67년생 저변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79년생 행운의 폭포수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떨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10, 24
寅	50년생 반작용의 현상이 놀랄 수도 있다. 62년생 소신대로 행한다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74년생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로다. 86년생 말로 하지 못할 처지나 사연이 있을 수 있으니 직접 만나보고 논하라. 행운의 숫자 : 14, 68	44년생 용도를 달리한다면 중간에 변경시킨다면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알라. 56년생 의지만 있다면 무궁무진한 발전이 보인다. 68년생 폐단은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0년생 기회들이 드러난다. 행운의 숫자 : 96, 03
卯	51년생 곁집의 노력을 기울여야 성취할 수 있겠다. 63년생 거의 비슷한 시제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실마리를 찾게 된다. 75년생 사전에 이미 계획되었다는 것을 금방 인식하리라. 87년생 밑바탕에 해빙의 열쇠가 내재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74, 83	45년생 변화하는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감응해야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57년생 전대미문의 파문을 풀고 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69년생 서로 협력하여 추진해야 성사된다. 81년생 경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6, 34
辰	40년생 징후가 보이면 반드시 현상을 동반하게 되리라. 52년생 객관적인 인식이 정확한 판단으로 이끈다. 64년생 용기와 지혜가 겸비되어야 한다. 76년생 제한할 수도 있느니라. 88년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77, 97	46년생 인이하게 생각하고 무방비 한다면 뒤통수 맞는 꼴을 야기할 수도 있다. 58년생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70년생 끼어들면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이 될 예지가 있다. 82년생 참으로 기가 막힐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5, 57
巳	41년생 어중간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 낫다. 53년생 고단함은 미래의 결실을 기억한다. 65년생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7년생 그치지 힘들이지 않고 처지하게 된다. 89년생 단단히 각오하라. 행운의 숫자 : 78, 46	47년생 마음이 설레어 일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59년생 형세가 전환하는 단계이므로 더 약화 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71년생 풍설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83년생 의도는 좋으나 호응이 약한 것이 아쉽다. 행운의 숫자 : 06, 11